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7월 22일(금)
...(음력 6월 24일)..
Пятница
22 июля 2022г.
№ 28 (1199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의 4번째 토요일 러시아에서 상업인의 날을 기념한다. 올해 기념일은 7월 23일이다.

(사진: 주정부 제공)

친애하는 상업 종사자 여러분!

사할린주 정부를 대표하여 상업인의 날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주민 47,000여명이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섬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더불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업시설들이 운영되고, 새로운 업종들 또한 활발하게 창업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과 현대적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와 함께 경제적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는 생필품 또는 농산물과 관련된 시설이 700 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최소한의 마진 혹은 생산 원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이런 소설판매장들을 방문하여 그 수요가 어느정도인지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업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높은 전문성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번영 및 모든 것을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지역 학교, 개학전 학교 시설 보수작업 착수

사할린 주정부 간담회에서 주내 학교 및 유치원 시설 보수 문제가 거론되었다. 9월 1일 개학에 맞춰 마카로브시와 쿠릴스크 지역의 레이도위에 있는 학생들은 준공된 학교들에서 공부를 시작할 것이고 또한 주내에서 많은 학교가 대규모 보수작업후 문을 열게 된다.

현재 34개의 교육 기관들이 지식의 날(개학)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총 150개 학교, 169개 유치원, 13개 기술 학교, 55개의 추가교육기관들의 준비상태를 점검 중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상사태와 화재 발생시 안전 요구사항 준수, 위생 규범 및 규칙 준수, 테러방지 보호, 유지보수 및 정밀검사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14개 학교에서 대규모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11개 학교가 마을 및 소규모 도시에 위치해 있다. 이는 아니와, 코르사코브, 흄스크,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니흐, 우글레고르스크, 오하, 유즈노사할린스크 등의 학교이다"라고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이 언급했다.

각 교육기관들은 지붕, 정문, 출입구, 엔지니어링 시스템, 인테리어 등을 보수하고 있다. 13개 학교에서는 개학 전에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오하 제1호 학교에서는 12월 1일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그리고 개학전에 안전한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사할린주 정부가 전했다.

사할린주지사, 돌린스크 구역 방문

지난 19일(화)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돌린스크 구역을 방문했다.

그는 의료시설, 주택건설, 사회시설 등을 방문하고, 아파트 입구 및 공공 장소의 보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지사는 돌린스크 구역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내용에 있어 보건분야 문제가 전통적으로 이어온 주요 주제 중 하나다.

돌린스크 중앙 구역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이 초음파 기계와 태아를 위한 모니터 같은 현대식 장비를 구입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자 주지사는 그 장비들은 10월1일까지 해당 병원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외 우글레자보드스크에 소진료소 건립에 관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물은 올해안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에너지 분야 발전 문제도 거론되었다. 이에 스타로둡스코에 주민들은 마을의 가스 인프라 조성 시기 및 현대식 보일러 난방 시설에 대해 문의했다.

이 질문에 대해 구젠코 주에너지 장관 미하일 구젠은 "마을간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미 건설되었고. 2023년에는 가스프롬 회사가 내부결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투가레브 구역장은 "내년에는 오래된 기존 보일러 대신 새로운 모듈식 가스 보일러 난방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저소득층 가정들이 주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할린주 사회보호부 소속 전문가들이 저소득층 가정이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벗어나 재정 상황을 개선하도록 돕는 특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사할린 주민들은 현재 창업, 교육, 취업, 법적 문제 해결에 있어 지원을 받고 있다.

그외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서비스문제, 사회 보장제도, 의약품 공급, 가격, 도로 시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데 총 30개 이상의 건의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단신

9월 1일까지 이투루프행 14편의 추가 취항

쿠릴스크구역의 와집 로코토브 구역장은 7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14편의 추가 항공편을 발표했다. "오로라" 항공은 이미 유즈노사할린스크 - 쿠릴스크 노선의 항공권 판매를 개시했다. 추가 항공편은 7월 28일, 8월 1일, 4일, 7일, 8일, 10일, 11일, 15일, 17일, 25일, 26일, 29일, 30일, 9월 1일에 편성된다.

현재까지 추가 항공편은 9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차후에는 이 노선의 비행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사할린주 관광부 장관 아르쉴라 라자레브에 따르면, 러시아 내 국내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한다.

극동지역, 연어 어획량60,000톤

러시아 수산해양연구소는 7월 17일 연송어 잡이 시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그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어획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송어(핑크 연어)이며 38,100톤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연어 6,500톤, 차위차 450톤, 시마 39톤, 키주츠 7톤이다. 태평양 연어의 주요 어업 지역은 캄차카 지역으로 53,900톤에 달하는 전체 어획량의 86%를 차지했고, 2 위는 하바롭스크 지역 4,300톤으로 7%를 차지했고 3위로는 사할린주와 마가단주 1,800톤으로 3%를 차지했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 주민, 연간 평균 364,000 루블리 소비

상업분야는 고용된 사람들의 수와 전반적인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기여도로 보아 경제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총생산에서 그 비율은 4%가 넘는다.

대형마트, 쇼핑몰오락센터, 편의점 등이 많은 지역에 들어서고 있고, 비 고정 거래 네트워크가 확장중이며 브랜드 상품의 매장 증가, 인터넷을 통한 매출도 늘고 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연초 사할린 지역에는 상업 기관이 약 28만 개였으며, 그 중 49.3%가 소매업체, 44.2%가 도매업체, 6.5%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파는 매장이었다. 약 54,000명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81.2%가 소매 거래, 12.7%가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상업은 중소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제 분야 중 하나이다. 2021년 소매업 매출액의 76.3%, 도매업 매출액의 39.4%를 중소기업들이 차지했다.

사전 추정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의 상업 종사자는 약 4만3,000명으로 지역 경제 종사자 수의 15.3%에 달한다.

도매무역단체(개인사업자 포함)는 2021년 1,581억 루블리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다.

소매 거래 총액은 1,767억 루블리에 달했다. 소매업 매출의 절반 이상인 51.9%가 식품, 48.1%는 비식품 제품이었다.

소매시장과 박람회 상품 판매 비중은 2.8%에 달했다.

2021년 사할린 주민 한 명당 평균 364,400루블리를 소비했다. 극 동 연방지구에서 이 지표는 평균 264,600 루블리에 달했고, 러시아에서는 270,600 루블리에 달했다고 사할린통계국의 보도부에서 전했다.

사할린, 의료기관에 새 의료구급 차량 21대 지원

얼만전에 사할린지역 의료기관에 새 의료 구급차 21대가 지원되었다. 올해는 사할린 지역에서 처음 받게되는 의료 구급차이다. 이 차량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보건분야에 있어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신화되고 있다.

이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조립 라인에서 나왔으며 UAZ 패트리엇 7대, UAZ 9대, Lada Vesta 5대이다. 이렇게 새로 지원되는 의료 구급 차량을 통해서 환자는 의료 종사자들에 의해 이송되고, 의약품과 생물학적 유체들이 제때로 전달된다. 이 구급차들은 사할린 및 쿠릴열도의 오후,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스미르니흐, 마카로브, 네웰스크, 돌린스크, 아니와, 토마리, 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세웨로쿠릴스크 구역으로 운행된다.

사할린 주에는 구급차량의 60% 이상이 이미 최신화되었다. 올해 연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6대의 차량이 추가로 사할린 지역에 들어올 예정이다. 지난 해에는 구급차량 94대가 공급되었으며 이 차량들은 의료종사자의 짐을 덜어주고 사람과 물품 이송에 있어 적시에 이용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맞물려 사할린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개선 또한 추진된다. 지역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전문 장비를 매년 구입하고 의료진단 및 치료 방법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할린을 떠나지 않고도 첨단 치료를 받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중앙 전문의 경험 공유

7 월 21 - 22일 이틀간 사할린주 중앙진료소(암 센터)에서 '동양의 노을(새벽)' 지역간 과학



실용컨퍼런스가 진행된 가운데 극동지역과 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러시아 선두 클리닉 전문의들이 참관했다. 이틀간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전문의들은 암 수술과 치료에 대한 여러 자료를 공유하고 수술에 관한 여러 마스터클래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암센터에서 모인 유방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의 중앙전문의들이 수술을 진행 했다. 총 10명의 환자가 부분별로 수술을 받게 되며, 수술의 주요 접근방식은 최소 침습적 복강경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보건부가 전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는 재활 기간이 단축되고 향후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한다.

사할린주 중앙진료소는 앞으로도 선두 클리닉 전문의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국립 방사선학 연구센터의 전문가들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반투이 기념행사 진행

지난 7월 17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공원에서 다국적 우정의 날로 사반투이(타타르인, 바쉬키르인의 전통축제)를 기념했다. 행사 주요 장소는 카트 경기장으로 타타르 문화 민속 전시관, 타타르 민속공예, 문학 전시 등 민속 전통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풍부한 콘서트 및 오락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모든 참석자들은 과자 만들기 체험과 인형 만들기 체험활동을 하고 사할린 지역의 여러 민족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사할린에서 사반투이는 현재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축제에는 한인, 부랴트인, 바쉬키르인, 키르기즈인, 러시아인 등 여러 민족이 한 자리에 모인다. 2006년에 처음 행사가 개최된 후로 매년 이 축제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점 더 확대 되어가고 있다. 올해는 콘서트 프로그램에만 약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 예술단뿐만 아니라 카잔에서 온 арти스트들도 초대되었다.

이 행사는 사할린주 타타르인 문화자치회 주최 아래 진행하였다.

"제16회 사할린 사반투이 문화 체육 대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몇년 동안 우리는 다국적 러시아 사람들의 문화를 신중하게 다루고 보존해왔다. 매년 이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긴 이 다국적 축제를 사할린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잘 이어져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타타르인 문화자치회 회장 자키야 알리토와는 위와 같이 말했다.

스포츠 부문의 행사 또한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미니 축구 대회도 열렸다. 주민들은 타타르 민속놀이 "화분 부수기"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타타르 민속 레슬링 케레쉬 결투에서 힘 겨루기도 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양 한 마리를 상으로 수여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Сабантуй

17 июл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ел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Здесь отмечали Сабантуй. Главной площадкой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а территория картодрома, где для гостей народных гуляний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насыщенная концертная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ботал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музей татарской культуры, выставки народных ремесел, татар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чак-чака, изготовлению кукол, а также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диаспор,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бантуй на Сахалине плотно закрепился. Праздник объединя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бурятской, башкирской, киргизской,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 Впервые торжество на островах состоялось в 2006 году, с тех пор его ни разу не пропустили, наоборот — массовые гулянья становятся масштабнее. В этом году только в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е около 150 участников.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пригласили не только местны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но и артистов из Казани.

Организатор события — региональна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тата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ы в 16-й раз проводим на Сахалине 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Сабантуй". Все эти годы мы бережно относимся и сохраняем культуру народов наше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России. Ежегодно это событие объединяет людей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и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Отрадно, что 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оставили нам наши предки,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татар Закия Валитова.

Спортивная часть праздника проходил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там состоялся турнир по мини-футболу. Кроме этого, горожане 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атарской народной игре "Разбей горшок", а также помериться силами в поединках татар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керэш.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для победителя стал живой баран, сообщает мэр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환경 캠프 "로드니크"의 1회차 종료

지난 7월 15일, 환경보호 캠프 "로드니크" 시즌 28회의 1회차 캠프행사가 끝났다. 이 캠프는 1995년부터 '로드니크'의 교육자, 직원, 자원봉사자, 파트너 단체들에 의해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사할린주의 생태 지속 가능 발전부가 지원한 가운데 이 곳에서 '그린 게임도서관' 기획 단계 중 하나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어온 이 캠프 장소는 코르사코브 지역의 부세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흄스크 지역에서 온 어린이와 교사등 약 80여명이 산림개간장에 자리잡은 캠프장에 모였다.

15일간의 "산림 학교" 기간 동안 아이들은 독립심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배웠고, 이 행사에는 관광, 생태, 지역 역사, 민속 창작, 프로젝트 등의 활동에 대한 수업이 매일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부세 호수 자연공원의 생물 서식지를 알아가고, 해안을 따라 1km 반경 청소하기,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 식용과 약용식물에 대한 마스터클래스, 새로운 팀에서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차에도 라디오 신문 및 환경 검사관의 서비스가 작동했으며 특별 행사로 '게임 [비밀 친구]' , '무라위요위까지 가는 방사형 여행' 등도 진행되었다.

캠프를 마무리 하면서 수업에서의 성적 우수자, 공식 업무 수행 우수자 그리고 최고의 숙소 및 최고의 프로젝트를 선정

하여 인증서와 상장을 전달했다고 '로드니크' 측이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캠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에코캠프에서 보낸 시간들을 기억하고 1년 후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의 연락처를 서로 주고 받았다.

Завершилась первая смена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Родник"

15 июля завершилась первая смена 28-го сезона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Родник". Лагерь проводится с 1995 года силами педагогов, сотрудников, волонтеров "Родника" и партнер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этом году работа лагеря поддержан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здесь ж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один из этапов проекта "Зеленая игротека".

Традиционно палаточ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расположилось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около лагуны Буссе. На лесной поляне собрались около 80 человек — ребята и педагог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инского и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ов.

Во время 15 дней "лесной школы" ребята училис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и бережному отношению к природе. Каждый день проходили занятия по туризму, экологии, краеведению, народному творчеству и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екты участники посвятили знакомству с обитателями природного парка "Лагуна Буссе" и очистке 1 км побережья от мусора, важности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мастер-классам по съедобным и лекарственным растения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в новом коллективе.

Как обычно, в течение смены работала радиогазета и служба экологических инспекторов, проходили праздники, игра "Тайный друг", радиальный поход до Муравьево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завершении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ребята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и грамоты за достижения на занятиях, за исполнение должност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в племени, определены лучший бивак и проект, сообщает "Родник". Около прощального костра все вспоминали смену и обменивались контактами с новыми друзьями, чтобы встретиться с ними снова в течение года и на следующих сменах эколагеря.

유즈노사할린스크,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댄스 축제 개최

구세대들의 댄스 경연대회 참석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주민속예술센터에 방문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댄스 축제가 열렸고, 리듬과 음악을 듣는 기술에서 그들은 결코 젊은 이들에 뒤 처지지 않았다.

이 축제는 사할린 스포츠부와 시 자치 기관 '스포르טיפ니고로드(스포츠 도시)', '사할린 댄스 월드'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시크한 의상을 입은 여성분들과 양복조끼에 나비 넥타이를 맨 신사들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피어나면서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8면에 계속)

한국어는 우리 희망과 자랑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와서 사할린에서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키모바 엘리자베타라고 합니다. 올해 21세입니다. 저는 카렐리아에서 태어나서 고등학생이 될때까지 살았지만 16세 되던해에 부모님을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2020년에 저는 사할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할린으로 오게 된 이유는 사할린국립대학교의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양학을 너무 좋아해요. 또 유년시절부터 한국 영화가 재미있어서 더욱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한민족의 문화와 음악,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러시아 서쪽에 동양어교육이 그렇게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이 가까이 있는 러시아 극동에 가는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양어를 배우기 위해 사할린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결심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제 설득에 넘어가셨습니다.

사할린이 너무 멀어서 이곳까지 오는 길은 힘들었습니다. 나의 가족은 저를 매우 걱정했지만 결국에는 제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지금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저를 응원 해 주고 있습니다.

사할린으로 가기 전에 기차를 많이 타보았지만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비행기를 타본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비행은 전혀 무섭지 않았는데 시간차가 8시간이나 되어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학교 때 일본어를 조금 배웠지만 사할린국립대학교에 입학할 때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어가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이 언어를 배우고 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기 좋아합니다. 한국 영화도 많이 봅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범죄 영화와 역사 드라마입니다.

사할린도 아주 좋아합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기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후보다 더 좋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산을 보았고 또한 등산을 했습니다. 저는 등산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할린 오기 전에 이런 것을 체험 못하게 후회가 됩니다

또한 음식에 대한 저의 인상을 꼭 말해야 한다. 고향에 다양한 물고기가 많이 있어서 사할린의 물고기에는 많이 놀라워하지 않았는데 계와 한식에 정말 놀랐습니다.

집에서 이런 음식을 아무도 만들지 않았고 김치, 해물탕, 국수 등을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식을 자주 먹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많은 행사가 있어서 제 삶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글 쓰기 활동 교실에 자원 봉사자로 자주 참여합니다. 사할린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리포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역사, 문화에 대해 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할린에서의 삶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할린에 살아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있으면 가족에게 연락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맨날 엄마와 전화통화를 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보고 싶지만 좋은 동양어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할린에 계속 지내야 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사할린으로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좋은 동양학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할린에 있는 많은 명소를 방문하고 싶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할린국립대학교 2학년생 엘리자베타 야키모바

재외동포재단,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주최하는 재외동포 학생 대상 모국방문 사업인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가 53개국 1,300여 명(재외동포 800명, 국내 50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7월 14일 시작되었으며, 8월 10일 대학생 2차까지 총 4회 시행된다.

- 청소년 1차(7월 14일~19일), 2차(7월 28일~8월 2일) 전국 6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 대학생 1차(7월 20일~27일), 2차(8월 3일~10일), 서울, 부산, 광주, 공주, 순천, 평창

재단은 참가자들의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제고를 위해 문화, 가치, 공존, 상생 등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새로이 마련했으며, 특히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구, 기

후, 환경 이슈 등 참가자 모두가 같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아울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방역 강화를 포함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실시 등 안전한 연수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온라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연수 활동 실시간 중계 등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동시에 진행한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연수가 참가자들이 흥익인간 이념을 갖춘 차세대 글로벌

별 코리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재외동포가 중심이 되어 각 거주국에 'Beautiful Koreans'를 알리는 공공외교 역할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온라인연수도 7월 1일~30일 1기를 시작으로 10월 1일~30일 4기까지 진행하며, 11월 5일 메타버스를 통한 1기~4기 통합 폐회식 및 수료식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해외입국자, 7월 14일부터 PCR 검사 결과 Q-코드에 등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사 결과 등록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월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이번 기능 도입으로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Q-코드에 등록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

기존에 Q-코드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는 7월 14일부터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등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PCR 검사는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

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를 등록할 때는 이름, 검사기관명, PCR 검사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려도 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는 여름철 BA.4, BA.5 등 신종변이의 유입이 우려됨에도,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해 입국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며 "Q-코드에서의 검사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그렇게 소중했던가 /

이성복

버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십 분간 쉴 때, 홀려간 뽕짝 들으며 가판대 도색 잡지나 뒤적이다가, 자판기 커피 뽑아 한 모금 마시는데 버스가 떠나고 있었다. 종이컵 커피가 출렁거려 불에 데인 듯 뜨거워도, 한사코 버스를 세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가쁜 숨 몰아 쉬며 자리에 앉으니, 회청색 여름 양복은 온통 커피 얼룩, 화끈거리는 손등 손바닥으로 쓸며, 바닥에 남은 커피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렇게 소중했던가, 그냥 두고 올 생각 왜 못했던가, 꿈 깨기 전에는 꿈이 살고, 삶 깨기 전에 삶은 꿈이다.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게 어찌하면 우리 인간의 운명이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시간에 쫓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1백년 남짓한 삶의 시간을 따져보면 정말이지 짧아도 너무 짧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모두 저질러보고 생을 달리해도 아쉬울 게 많은 게 인생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부둥켜안고 지내도 짧기만 한 게 인생이잖아요. 아, 어찌 이번 원고도 불안 불안합니다, 아무튼. 미련, 후회, 회한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는지요. '앎'보다 '지혜'가 절실한 오늘을 느낍니다.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같은 '지' 자인데, 지혜 지(智)는 알 지(知)에 시간을 덧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 지(智). 현명하게 주어진 일상을 받아들이는 게 어찌하면 '지혜'의 초석이 아닐까 떠올립니다.

지난 주 지리산(1915m)을 오르는 내내 '지혜'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백무동에서 한신계곡을 오를 때만 해도, '지금 나는 '선캄브리아 시대'의 바위를 밟고 있구나', 이런 사색을 하며 걸었어요. '쥐라기 시대의 흙 냄새가 나쁘지 않군', 이러면서 여유를 부렸던 겁니다. 어벤져스보다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 까불었던 거죠. 하지만 지리산은 신비스러우면서도 실로 오르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지리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뜻을 함유하잖아요. 새벽 3시. 세석대피소에서부터 걸어 장터목까지. 그리고 장터목 대피소에서 천왕봉까지 오르는 계획이었습니다. 세석 대피소에서 1박 후 정상에 오르는 무려 1박 2일의 산행 일정. 하지만 소소한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들은 모두 천왕봉을 찍었지만, 저는 장터목까지만 등정했거든요. 시계도 불안하고, 백무동에서 세석대피소에 오를 때 이미 제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백무동에서 세석대피소까지 거의 다 올라왔을 무렵, 번갈아 가며 양쪽 다리에 쥐가 나 진땀 땀나 흘렸거든요.

그 때 제게 든 생각. 천왕봉이 내 인생의 목표인 건가, 아님 천왕봉보다 더 험준하겠지만 이와 비슷한 내 나름의 목표치가 내 목표인 걸까. 저는 제 분야에서 만큼은 사력을 다해 거뜰 열정을 태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대피소에서 다음 날 새벽 3시에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이 좋지 않아 좀 더 어둠과 운무가 사라지길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살짝 두통도 채 가시지 않았던 것도 같고. 아쉬움은 남지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일 테니, 이 역시 미련을 거두는 노력도 의미가 있을 거라며 제 뇌를 제 뇌가 달래면서 말이죠, 아무튼 말은 '참'.

이성복 시인의 일상을 포착하는 시선이 제 마음에 닿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시인 덕분에 보다 넓은 사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꿈 속을 걷는 것만 같던 운무 속 어느 고지대. 그 때 제가 찾아 헤매던 풍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жная Корея решила продлить запрет на поездки в Украину

Сеул, 19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Табу затрагивает и шесть других охваченных конфликтами стран, а также в некоторые районы России, Беларуси и Филиппин до конца январ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из-за сохраняющихся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общило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траны.

Срок действия меры, введенной ранее для граждан Южной Кореи, истекает 31 июля. Под запрет попадают шесть стран — Афганистан, Ирак, Сомали, Йемен, Сирия и Ливия. Продление также затронуло некоторы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и Беларус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в пределах 30 километров от украинской границы, а также южный регион Филиппинского архипелага.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слалось на местные услов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ысокую вероятность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риск продолжения терроризма там «в течение знач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Пилоты из Black Eagles завоевали награды на авиашоу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Пилотажная групп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Black Eagles получила две высшие награды на крупнейшем в мире показе военной авиационной техники, состоявшемся с 15 по 17 июля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на авиабазе в Фэрфорде, графство Глостершир.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илоты стали обладателями высшей награды авиашоу - Мемориального меча короля Хусейна за лучший показательный пилотаж, а также ещё одной награды - As the Crow Flies Trophy.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пилоты из Black Eagles получили те же награды десять лет назад. В ходе 25-минутных показательных полёт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илоты выполняли сложные воздушные манёвры, рисуя на небе символ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лага. 16 июля они совершили облёт Мемориала британских участнико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KBS World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На большой экран выходит фильм Дениса Тена «Слепая любовь»

Ровно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в Алматы погиб чемпион Казахстана и бронзовый призёр Олимпиады фигурист Денис Тен.

На большие экраны страны (Казахстан) 28 июля выйдет фильм Дениса Тена «Слепая любовь», сообщил «31 канал».

Сценарий к картине написал сам знаменитый фигурист, но довести до конца это дело не успел. Закончить работу смог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голливудского 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Генеральными продюсерами выступили Тимур Бекмамбетов и мама Дениса Оксана Те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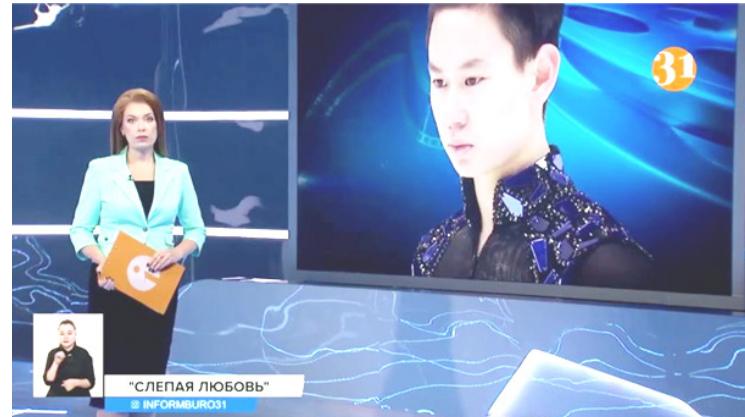
Сценарий Денис написал в 2018 году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Screenlife Contest от кинокомпании Тимура Бекмамбетова. Конкурс кинокартин проходил тогда в Москве. На нём наш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обойдя две сотни соперник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Тогда, собственно, команда и приступила к съёмкам фильма.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месяц после победы в конкурсе, 19 июля, на Дениса Тена напали с ножом в родном городе дв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вора. Он получил раны, не совместимые с жизнью, и скончался. Спортсмену было 25 лет.

Возобновились съёмки фильма лишь год спустя. Как вспоминает друг олимпийского чемпиона и продюсер фильма Игорь Цай, из-за того, что снимали картину без автора, процесс оказался очень сложным и занял целый год.

«Вся команда — и Тимур, и мы — все поняли, что фильм должен осуществиться. И вместе с мамой Дениса мы приняли это решение — снять всё, как в сценарии», — сказал Игорь Цай.

История повествует о двух одиноких молодых людях с нарушениями речи и зрения. По сюжету они становятся друзьями по переписке, которая затем постепенно перерастает в любовь. Но признаться друг другу в чувствах влюбленные стесняются из-за сво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Действия картины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в



Америке, штате Калифорния.

Фильм снят в формате screenlife — это такое киноповествование, где все события фильма происходят полностью на экране компьютера либо телефона.

«Я был очень рад стать частью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манды и претворить в жизнь видение мира такого талантливого человека и великого спортсмена как Денис Тен, — подчеркнул режиссёр из Южной Кореи Чак Че. — Когда я впервые прочёл сценарий, был сильно тронут. Весь процесс съёмок меня не покидало чувство одиночества. Думаю, именно таким ощущал себя сам Денис Тен. Надеюсь, нам удалось передать это и в самом фильме».

Чака Че выбрали в том числе и потому, что хотели придать картине драматизма, присущего корейскому кино. При этом правок в оригинальный сценарий команда не вносила. Отсюда и длительность картины — 32 минуты.

А в музыкальном сопровождени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авторские песни Дениса Тена. Сохранили создатели и оригинальный язык сценария — английский. Для отечественных зрителей фильм озвучивали известные блогеры Биржан Ашим, Ахмад Хельми и Назим Миссанов.

Источник: <https://informburo.kz>

Японская компания отказывается выплачивать компенсации жертвам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Сеул, 16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Японская компания Mitsubishi, которая управляла шахтой на острове Хасима, где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спользовался принудительный труд из Кореи и Китая, построила памятник китайским рабочим, но не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Запоздалое откровение появилось накануне продаж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ктивов Mitsubishi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на отказалась выполнить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уда о выплате компенсации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труда.

Mitsubishi Materials (бывшая Mitsubishi Mining) построила мемориал в Нагасаки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камне выгравированы имена 845 китайских принуд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с эпитафией: «Мы признаем нашу неспособность по-настоящему взглянуть в лицо историческим фактам и искренне чувствуем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нарушения прав человека, совершенные против китайского народа, и хотим выразить глубокое сожаление и искреннюю скорбь».

В 2016 году японская компания признала, что заставляла китайцев работать на своих заводах, и согласилась выплатить 100 000 юаней компенсации каждой жертве. Мемориал был частью обещания. Подобные мемориалы, по-видимому,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на шахтах в Аките, Фукуоке, Хоккайдо и Мияги.

Но Mitsubishi Materials и дочерняя компания Mitsubishi Heavy Industries отказались принести извинения корейским жертвам или выплатить им компенсацию. Активы Mitsubishi Heavy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и арестованы из-за невыполнения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о выплате компенсации и должны быть распроданы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месяца, если не будет найдено реше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туристам обещают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Бали/Сеул, 18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Южная Корея будет настаивать на освобождении налогов на процентный доход и прирост капитала от инвестиций иностранце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блигации и облигации денежной стабилизации в попытке помочь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долговой рынок, заявил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Чу Кен Хо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етали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пересмотра налогового кодекса на встреч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на Бали в кулуарах встречи финансовы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руппы 20 (G-20).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добиваться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налогов на процентный доход и прирост капитала для инвестиций нерезидентов и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в казначейские облигации и облигации денежной стабилизации, чтобы помочь расширить базу спроса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блигации и продвигнуть долговой рынок», — сказал Чу.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т шаг стабилизирует облигационный и валютный рынок страны, поскольку увели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облигации, вероятно, поможет снизить доходность облигаций и обуздать

слабость воны, согласно министерству финансов.

Южная Корея настаивает на присоединении к Всемирному индекс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блигаций (WGBI), составляемому FTSE Russell, индексу, измеряющему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ынк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блигаций, в попытке привлечь больше инвестиций со стороны иностранцев.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ан, присоединившихся к WGBI, не облагают налогом процентный доход от инвестиций иностранце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блигации.

Чу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овысить лимит беспошлинного пособия для въезжающих туристов до 800 долларов США на человека с нынешних 600 доллар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 как граждане Южной Кореи, так и иностранцы —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при покупке товаров на сумму до 600 долларов на человека.

«Чтобы лучше поддержать индустрию туризма,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вшую от пандемии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повысить лимит беспошлинного пособия, который не менялся с 2014 года», — сказал Чу.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Дело рыбаков из КНДР должно расследовать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сех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репатриацие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ыбаков в 2019 году, должно проводиться в полн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и законами страны.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 ход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раткого утреннего брифинг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18 июля.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обавил, что вс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вопросы должны решаться законным путём 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В 2019 году дво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ыбаков были задержаны недалеко от морской границы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Они признались в убийстве 16 своих товарищей, находившихся в той же лодке, и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остаться в РК. Однако тогдашне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нало их преступниками и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вернуть обратно на Север. Ряд экспертов считают, что подобные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оречат конвенции ООН, запрещающей отправку людей в страну, где им грозит жестокое обращение. Кроме того, согласно Конституции РК, все северокорейцы являю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гражданами.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квир-культуры

16 июля на площади Сеула в центре столицы состоялся 23-й Сеуль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вир-культуры,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LGBTQ-сообщества — лесбиянки, геи, бисексуалы, трансгендеры, а также их сторонники и правозащитники. Размахивая радужными флагами, которые символизирует движение LGBTQ,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дискриминации, изоляции, разжигания ненависти и насилия в отношении сексу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заявили, что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35 тыс. человек. По данным полиции,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не превышало 14 тыс. человек.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л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енных мер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скольку его гостями были новый посол США в РК Филип Голдберг и другие иностранные дипломаты. Американский дипломат пообещал всемер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южнокорейское LGBTQ-сообщество в рамках защиты прав челове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христианских и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вели рядом с площадью Сеула соб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высказали своё отриц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тем, кто пытается уничтожить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По данным полиции, между противостоящими группировками происходили словесные перепалки, но сообщений о физических столкновениях не поступа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LGBTQ-сообщество проводит фестивали ежегодно, начиная с 2000 года. В 2020-2021 годах они не проводились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ъезжающие в РК могу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данные ПЦР-теста

С 14 июля все въезжающие в РК из-за рубежа могу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ПЦР-теста на COVID-19 в систем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и получить Q-code.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ействующими правилами, все прибывающие обязаны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COVID-19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Граждане РК и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стране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могут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в цент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вшие на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ый срок,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центром тестирования в аэропорту или медицин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рядом с местом проживания. С 25 июля будет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Продажи К-пор альбомов достигли очередного рекорд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нынешнего года продажи К-пор альбомов достигли очередного рекорда.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Circle Chart, совокупные продажи 400 лучших физических альбомов составили за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34 млн 947 тыс. 247 копий. Это на 34,6%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Группа BTS возглавила список - 4 млн 523 тыс. копий. Далее следуют NCT Dream - 3 млн 980 тыс., Seventeen - 2 млн 720 тыс., Tomorrow X Together - 2 млн 100 тыс. Альбом-антология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Proof стал самым продаваемым альбомом - 2 млн 957 тыс. копий.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оказался четвёртый полноформатный альбом Seventeen под названием Face the Sun - 2 млн 373 тыс. копий.

В Лондоне пройдёт выставка об истории Халлю

В Лондоне состоится выставка, посвящённая современной истории РК и её культуре.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24 сентября этого по 25 июн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 Музее Виктории и Альберта (V&A). Это крупнейший в мире музей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снованный в 1852 году. Название выставки - «Hallyu! The Korean Wave».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процессу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и её влиянию на мир моды и красоты. Выставка на эту тему будет впервые проводиться в крупном зарубежном музее. В экспозицию войдут около 200 экспонатов, фотографии, картины, видео, керам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13-го века, образцы моды 90-х годов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RKI)

Новая метла Сеула: зачем в Корее упразднили комитет по связям с РФ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взял курс на сближение с Вашингтоном в ущерб отношениям со странами Евразии

Консерватив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который вступил в должность совсем недавно — в мае —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существенно уменьшить количество комитетов, которые напрямую подчинялись лидеру страны. Вроде бы простая формальность — но не только. Под сокращение попал и Комитет по северн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КСЭС). Он курировал связи с Россией 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Евразии.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решение отражает новые приоритеты Сеула. Теперь там делают ставку на всестороннее укрепление альянса с США, ликвидируя при этом проч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оторые пытались развивать предыдущее руковод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вели «предвар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продолжения работы комитетов, которые были созданы еще при предыдущ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напрямую подчинялись лидеру страны. Из 20 подобных структур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сохранить шесть, еще две объединить, а остальные 13 ликвидировать. Хот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йдет еще одно заседа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общее решение уже принято, сообщили источник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ве трети комитетов, которые при президенте-демократе Мун Чжэ Ине подчинялись ему напрямую, будут ликвидированы с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тивников в лице консерватора Юн Сок Ёля. В Сеуле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это позволит оптимизировать управление, а также позволит сэкономить 25 млрд вон в год (около \$18 млн).

В число подпадавших под сокращение структур входит и КСЭС. Точнее, он просто отработает установленный срок и автоматически завершит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одление его полномочий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Комитет создавался в начале правления предыду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в августе 2017 года. Изначально перед ним поставили задачу курировать проекты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участием РК, КНДР и России, а еще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двусторонние связи с Москвой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нтерес к которому корейцы всегда проявляют. Со временем на комитет возложили полномочия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о странами Евразии в целом, включая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е республики, СНГ, Монголию, северную часть Китая. Считалось, «на балансе» КСЭС находятся 14 стран, но приоритетом всегда оставались Россия 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Понятно, что с приходом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ерьезные кадров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сегда неизбежны, особенно если власть получает оппозиция. Вместе с тем, ликвидация КСЭС стала не столько попыткой убрать лишние структуры, которые дублировали работу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сколько отражением ново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стратегии Юн Сок Ёля.

Еще во время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Юн четко дал понять: в случае его победы глав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в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станет всестороннее укрепление союза с Вашингтоном. Юн и окружавшие его фигуры считали, что демократы во главе с Мун Чжэ Ином слишком сильно заигрывали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 Китаем, распыляли силы на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что негативно сказалось на отношениях с главным союзником —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Консерваторы заявили, что намерены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весьма жесткой линии по КНДР и не будут пытаться во что бы то ни стало улучшать межкорейские связи. Пекину также был обещан «разговор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ов». Под этим в Сеуле подразумевают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США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 Речь идет о размещен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новых аме-

риканских противо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THAAD, к чему китайцы относятся крайне негативно.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до 24 февраля Юн Сок Ёль сначала отделялся общими, обтекаемыми фразами. Хотя уже тогда было понятно, что значимость Москвы для Сеула при новом руководстве уменьшится. После же начала спец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Корея примкнула к введенным против России санкциям Запада. Хотя конкретно решение про санкции приняли еще демократы, но со вступлением в должность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еул еще больше ужесточил антироссийскую риторику. И даже обсуждал с США, как усилить давление на РФ. По другим важ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ерестала даже пытаться как-то лавировать. Сеул дает понять, что в глобально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США с Китаем однознач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американцев, даже ценой ухуд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Пекином. Наконец, политика РК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практически копирует американский подход.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Комитет по северн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оказался совершенно не нужен нов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Ради альянса с США Сеул готов пойти на ухудшение связей с теми странами, ради которых создавался КСЭС — с Россие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 частью Кита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аходившимися «под крылом» комитет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на двусторонней основе.

Хотя решение и было ожидаемым, мног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встретили его с сожалением. Особенно те, кто выступает за развитие многовекторной политики и против отказа о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ми странами, несмотря на не самые простые времена. Тем более,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и они пройдут. Особенно опечалились 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по России и странам СНГ. Они убеждены: при всех возможных недостатках комитет сыграл больш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связей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Евразии.

Директор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стратегии в Евразии, долгое время проработавший дипломатом в России и в странах СНГ, Пак Пён Хван уверен: КСЭС нельзя был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птимизации расходов госбюджета. Об этом он с сожалением открыто пишет в статье для издания «Чхочжи Ильбо».

Евразия с её огромным рынком и богатыми ресурсами является тем регионом, от которого мы не можем отказываться. В том числе ради придания нового импульса развитию нашей экономики, — отмечает Пак Пён Хван.

Бывший дипломат приводит еще несколько причин, из-за которых КСЭС нельзя было ликвидировать. Так, в государствах Евразии ро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власти очень велика. Чтобы вести с ними дела комплексно, нужна именно госструктура, особый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орган. Кроме того, с исчезновением КСЭС во многом разрушатся связи, наработанные за пять лет. Да и сами страны региона могут негативно вос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на. Ведь КСЭС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ал тем окном, через которое решались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ак отмечает, что на уровне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обычных люд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интерес к Евразии растет.

Если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фициально решит ликвидировать КСЭС, то вся «северная политика» последних трех десятков лет, которую выстраивали преж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йдет насмарку, — резюмирует эксперт.

(Олег Кирьянов)
(Источник: news.ru)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и Дом-интернат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ктивисты движения по просьб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стретились с постояльцами социа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чтобы у каждого лично узнать о пожеланиях.

— Я предложил отправиться в Дом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чтобы волонтеры напрямую пообщались с постояльцами. Люди пожилые зачастую просто стесняются обратиться с какими-то просьбами и пожеланиями. Может быть есть вопросы по питанию, условиям проживания,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инвентарю. Может они хотят выезжать в музеи, театры. Вот такой личный контакт, на мой взгляд, как раз лучший способ получи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координатора движения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по социальн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Натальи Новопашиной, в целом нареканий к вопросу обслуживания в учреждении у постояльцев нет, люди довольны работой персонала Дом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в учреждении. Чисто, светло, уютно. Но люди хотят больше общения. Куда-то почаще выезжать. Люди там зачастую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оэтому на это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Еще просят продумать вопрос с газетами и журналами в магазине, который работа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учреждения. Один человек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что у него не очень удобная коляска. Еще нужен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врач, —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Новопашина.

В учреждении есть вторая ставка врача, 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пока нет.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минздраву реш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Министерству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в чьем ведении находится учреждение, поставили задачу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с разнообразием питания. Мужчине-колясочнику подберут новый инвентарь.

— Организуем для постояльцев посещение кино, музеев, театров. Для перевозки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у нас есть специальный автобус. А в плане общения уже не только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помочь, но и молодеж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ая обратная связь должна быть налажена со всеми соци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региона.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мерены посетить постояльцев и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нял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ебывание в лесах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ись жители с просьбой смягчить запрет на отдых на природе.

Ранее агент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овало ограничить пребывание людей в лесах и въезд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на 21 день. Речь шла о запрете для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ом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В середине летнего сезона нельзя лишать людей возможности пойти в лес, собрать грибы и ягоды, подышать свежим воздухом. Ограни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нять, чтобы только там, где существует настоящая опасность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изываю сахалинцев бережно относиться к природе и остор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с огнем в леса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вязи с высокой угрозой возгорания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ребывания в лесах коснутся только четырех районов: Долин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и Охинского. По границе территорий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аншлаги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информацией, дороги будут перекрыты шлагбаумами, создана система контрольно-пропускных пунктов.

Запрет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лиц,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работы по охране лесов от пожаров и использующих земли на основании договоров аренды лесных участков, и их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Сахалинцам напоминают правил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лесу: не бросать горящие спички, окурки, тлеющие тряпки; не разводить костер в густых зарослях и хвойном молодняке, под низко свисающими кронами деревьев; рядом со складами древесины, торфа,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близости от созревши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не оставлять самовозгораемый материал: тряпки и ветошь, пропитанные маслом, бензином, стеклянную посуду, которая в солнечную погоду может сфокусировать солнечный луч и воспламенить сухую растительность; не выжигать сухую траву в полях и на лесных полянах; не разводить костер в ветреную погоду и оставлять его без присмотра; обязательно залить водой костер, покидая стоянку.

21 современная машина пополнила автопарк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С получением ключ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поздр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Это первая парт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который получае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этом году. Обновление автопарка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ли получать своевременную качественную помощь, а медики — работать в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Для этого мы

повышаем доступность услуг, обеспечиваем учреждения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транспортом.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благородным делом — спасением жизни людей. Пусть н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станут в этом хорошим подспорьем, — обратился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обновлением автопарка медиков поздравил также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чкин.

— Все мы не раз ездили по охинской трассе, по западному побережью Сахалина и понимаем, насколько важно, чтобы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могли всегда быстро попасть к пациентам. Новые автомобили помогут нашим врачам в этом, — сказал он.

Все машины —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только вышли с конвейера. Это 7 УАЗ-Патриотов, 9 УАЗов и 5 седанов «Лада Веста». С помощью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будут перевозить пациентов и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доставлять лекарственные препараты и биологические жидкости.

Транспорт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в район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Охинск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Долинский, Анивский, Томаринский, Курильский,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 В любом районе медицина не может обойтись без машин. У нас девять сельских ФАПов. Чтобы быть мобильными, обеспечива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во все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необходим транспорт. Сегодня мы получили два автомобиля «Ла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м уже передали два санитарных автомобиля и машину скорой помощи, постепенно автопарк заменяем на современный,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Анивской ЦРБ Иветта Забели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новили уже более 60 процентов санитар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 острова придут еще 36 автомобил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едицинский автопарк пополнили 94 машины. Они помогли значительно разгрузить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обеспечить своевременную доставку людей и грузов.

Отметим, улучшен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медучрежден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также в рамках реформы остров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запущенно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ежегодно приобретает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расширяются методы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увеличив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пациентов, получающи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ое лечение,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Сахалина.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шел в ТОП-200 инициатив форума «Сильные идеи для нового времени»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шел в ТОП-200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нициатив форума «Сильные идеи для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в рамках на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инициативы (НСИ). Форум проводится Агентств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АСИ) и Фондом Росконгресс.

Сельские жители постоянно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низкой доступностью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врачей, медицинских изделий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Проект «Умный-ФАП» направлен на улуч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отдаленных сельск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и оператив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пациентов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дистанционной передачи результатов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медицинские центры.

«Это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нацелен н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оддержание здоровья наших жителей. «Умный ФАП» помогает вовремя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ку и начать лечение. За врем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 помощью SMART-технолог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следовано около 2,5 тысяч человек —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еремещений в районный или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и траты времени. Забота о людях и совреме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соединились в этом проекте наилучшим образом,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и расширять эту практику во всем регионе»,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бор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дей для форума производился рабочими группами экспертного совета АСИ. В их составе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оскомпаний, бизнеса, нау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экспертного совета — Игорь Шувалов, глава ВЭБ.РФ.

Всего на конкурс было подано более 19 тыс. инициатив по семи темат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циональная социальная инициатива, Национальн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Национальная кадровая инициатива, Национальная экологиче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Открытый разговор.

«Подобн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опадают к нам со всей страны, позволяют взглянуть на текущие процессы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о стороны обыч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Благодаря этим идеям и инициативам мы получаем возможность улучшать качество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 в различных ведомствах по всей России, масштабировать объемы оказываемой нуждающемуся населению помощи и облегчать процесс ее получения. АСИ старается оказывать максим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и помогать в дальнейшей реализации подобных инициатив»,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дивизион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АСИ Александр Пироженко.

Уже сейчас члены экспертного совета АСИ присту-

пили к отбору ТОП-100 идей из двухсот. Отобранные экспертами идеи получ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через партнерскую сеть АСИ и Фонда Росконгресс — федер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институты развития, коммерческих партнеров, НКО. Эти организаци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поиске проектов и решений для дальнейшей всесторонней поддержки.

НСИ — это механизм, позволяющий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услуг и сервисов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потребностей человека в различных жизн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Идея НСИ прозвучала на заседании Наблюда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9 июля 2020 года. По его итога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ручил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тщательнее следить за чистотой и обустрой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их пляжей

На засе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нял вопрос готовности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 отдыха к купальному сезону.

—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мы принимаем предложения от жителей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ляжей.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запросы людей нужн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Если сахалинцы просят поставить мусорный бак 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раздевалку, убрать грязь —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это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двух дне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бращаю на соблюдение чистоты на пляжах и в других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ах отдых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валок быть не должно!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ольше всего людей традиционно устремляются на пляжи Анив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Все они подготовлены к приезду любителей отдыха у моря.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а Швеца, на основной набережной установили спасательный пост и туалетный модуль, до конца недели появятся кабинки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и шезлонги. В этом году муниципалитет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бережной получил 4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До 20 июля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на определение подрядчика, до осени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работы. В излюбленном месте отдыха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строить душевые, летние кафе, беседки, в стороне от пляжа — большую автомобильную парковку.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аются также на набережной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Благодаря субсидиям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пляже в Яблочном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установлены 35 деревянных шезлонгов и закупается еще 150 пластиковых, установлены 6 кабин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4 душевые секции, туалет, павильон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чал работу стационарный пост спасателей.

Для пляжа Солнечного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иобретено 30 шезлонгов, 30 зонтов, 6 кабинок для переодевания, установлены биотуалеты. Ведутся работ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территории вблизи памятника природы «мыс Великан». Там обустроят парковочную площадк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установят теневой навес и оборудуют санитарную зону.

— Хочется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астные инициативы. К примеру,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у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в Шахтерске обустроила пляжную территорию с раздевалками, туалетами, лавочками, дорожками.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компания «Мейнстрим» обустривает пляжную зону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аренды лежаков, душевыми, летним баром. Если экономика предприятия будет положительно, в управление возьмут еще ряд территорий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Сахалина,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ртем Лазарев.

К жаркому сезону готовят не только пляжи, но и другие популярные места отдыха на природе. К началу августа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обустроят новы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тропы с беседками, шезлонгами, деревянными мостикам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стендами. На Дагинских термальных источниках очистили купели и восстановили температуру воды. Посещать источники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Движе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поездов «Орланов» синхронизировали с расписанием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Кроме того, с учетом пожеланий туристов скорректировали движен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Поезд, который ходит в сторону пляжа и Чертова моста, теперь осуществляет три рейса в день.

Расширилась программа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бесплатных экскурсиях побывают более 16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из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 это в 9 раз больше детей,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ебята посещают музеи, аквапарк, кафе, участвуют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играх. Программа пользуе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не приостанавливать проект летом и привлечь воспитанников пришкольных 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х лагерей.

Отмети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феры туризма выросло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и составило свыше 37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почти 7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ыделено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уризм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 отдыха, за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재단, 'ViBac 2022 전시회' 참가, 국내 기업 참가 유치 홍보관 운영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ViBac서 한상대회 참가기업 모집 부스 참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한상대회 참가 유치로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재외동포재단은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 박람회(이하 바이백, ViBac 2022)'에서 제20차 세계한상대회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리는 바이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 미래 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백신, 마이크로 바이옴 등 연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첫 바이러스, 박테리아 관련 산업박람회로 총 10개국 25개사 바이어와 80여개 관련 기업이 참가한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올해 11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의 국내 참가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올해 한상대회의 특징점과 한상네트워크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을 한상대회 기업전시회에 유치할 계획이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

국의 선진적인 코로나 방역체계와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며, "우수한 바이오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이번 한상대회 참가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시장 진출을 물론, 우리의 바이오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참석하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올해 '제20차 세계한상대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회등록은 한상넷을 통해 8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또한 역대 최초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내년도 '제21차 세계한상대회'는 2023년 10월 11일 ~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바르게살기운동 남동구협의회, 사할린 동포 어르신과 역사문화 탐방



▲ 바르게살기운동 남동구협의회, 사할린 동포 어르신과 역사문화 탐방

바르게살기운동 인천 남동구협의회는 최근 남동사할린센터 어르신들과 회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을 탐방지로 선정해 제적봉 평화전망대와 역사박물관 등을 관람하며 그리워하던 고국의 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방명철 회장은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과 함께 강화 곳곳을 다니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나누며 가족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신문]

'가치가유 충남119' 올해 2차 지원 대상 선정

14일 심의 거쳐 화재피해 도민 등 17가구 지원 대상 확정

충남소방본부는 올해 두 번째 '가치가유 충남119'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화재피해주민과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17가구에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중 A(여·79) 씨와 가족들은 5월 발생한 화재로 살던 집을 잃게 돼 현재까지도 인근 이웃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B(여·40) 씨는 선천적 뇌병변의 중증 장애로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데 뚜렷한 수입이 없이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과 생활고에 고통을 겪고 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C(84) 씨는 4월 화재가 발생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집수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 한인 등 3가구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가치가유 충남119'는 지난해 2월부터 3억 6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았으며, 이번 17가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83가구에 2억 1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김연상 충남소방본부장은 "가치가유 충남119는 일반 도민과 기업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충남소방본부 직원들이 '가치가유 충남119'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화재가 발생한 A씨의 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충남소방본부>

© 온양신문

제20차 세계한상대회

The 20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2. 11. 1(화) - 11. 3(목)

울산전시컨벤션센터(UJECO)

| 한상대회 사전 등록 기간 |

2022. 5. 30(월) ~ 8. 31(수)

| 한상대회 홈페이지 |

www.hansang.net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

20 Years of great Korean Business: Embracing the World

주최 재외동포경제단체

주관 OVERSEAS KOREAN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매일경제신문 MBN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이 경기에는 아마추어와 프로들 사이의 경쟁이 펼쳐졌다. 78명의 남녀 참가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프로그램(삼바, 차차차)과 유럽 프로그램(슬로워 왈츠, 탱고, 비엔나 왈츠, 퀵스텝)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들은 커플 또는 솔로로 출전하였다.

이 행사로 비추어 볼때 춤과 함께 하는 연금 수급자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본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спортивного танца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растрогали сердца гост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десь состоялся первый фестиваль спортивного танца среди пожилых островитян — и в мастерстве слушать ритм и музыку они ни в чем не уступали нашим современникам.

Общими усилиями фестиваль организовали сахалинское минспорта, муниципальное автономное учреждение «Спортивный город» и общественное движ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мир». Солидные дамы в шикарных нарядах, кавалеры в жилетках и с галстуками-бабочками на шеях расцветали в улыбках, очаровывали зрительный зал и жюри.

Соперничество развернулось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78 женщин и мужчин представи-

ли европейскую программу (медленный вальс, танго, венский вальс, квикстеп), а также латиноамериканскую (самба, ча-ча-ча). Выходили не только парами, но и соло.

С танцами жизнь пенсионеров становится насыщеннее и полнее.

사할린 주민들,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낭독하기에 초대

제 1회 전러시아 낭독의 날 "살아있는 클래식"이 7월 23일 사할린 지역에서 열린다.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또는 산문 작품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읽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번 행사는 사할린 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린다. 주민들은 좋아하는 구절을 읽는 것 외에도 이름난 창작문화 활동가들과 독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행사는 또한 새로운 작가들을 만나고 이미 잘 알려진 작가들을 재 발견할 수 있는 대규모 문학 네트워킹을 개최할 것이다. 창작단체, 예술가, 운동선수, 가수뿐 아니라 문화·문학 분야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오른다.

참가자로서 작품을 읽으려면 운문, 산문, 민속학 중에 러시아 및 해외 작가들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발표 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참가 등록은 Read aloud day공식앱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추가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사할린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 추가 플랫폼은 Tymovskaya 중앙 지역도서관이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читать любим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слух

Первы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чтения вслух «Живая классика» состо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3 июля. Участие в этой акции сможет принять любой, главное — желание выступить с отрывком из любим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эзии или прозы.

Пройдет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омимо чтения любимых отрывков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и пообщаться с извест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деятелями культуры и чтецами. Также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йдет масштабный литературный нетворкинг, где можно буд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ыми авторами и заново открыть для себя уже известных. На одной сцене вместе с горожанами выступят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артисты, спортсмены и певцы, а также эксперты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литературы.

Чтобы стать чтецом, нужно выбрать любим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или зарубежных авторов в стихах, прозе или фольклорное. Регламент выступления — не более пяти минут.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чтения доступн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Дня чтения вслух, там же можно узн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принимающей праздник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нет Тымовская центральная райо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